차 례

제1과
몸소 사진을 찍어주시며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우리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해 4월 12일 아침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아주시려고 어느 한 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대원수님께서는 학교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시고나서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선 넓은 운동장을 둘러보시였습니다.

아롱다롱 꽃무늬를 놓은 세타에 산뜻한 치마를 받쳐입은 녀학생들, 파아란 양복을 입은 름름한 남학생들이 줄지어선 운동장은 마치도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진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여 학생들에게로 다가가시였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대원수님께서는 옷이 알락달락한것이 곱고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어 한 학생의 옷에 묻은 실밥도 떼주시고 세타가 몸에 꼭 맞는가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시였습니다. 녀학생들이 신은 신발의 색갈과 생김새까지 헤아려보시고는 곱게 만들었다고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한 남학생앞에 이르시여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며 《나보다 더 신사로구만!》라고 하시며 크게 웃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의 새옷이 몸에도 맞고 보기도 좋다고,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곁에 있던 일군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였습니다.

어느새 아침해빛이 밝게 비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신듯 해빛을 몸소 가늠해보시고나서 이제는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습니다.

순간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대원수님께서는 최우등생들부터 먼저 나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학생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주고 그 사진을 나도 한장씩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시다니!)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사이에 몸소 사진기를 잡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사진찍을 자리를 정하시였습니다.

친히 한손에는 사진기를, 다른 손에는 의자를 드시고 여러차례 자리를 옮기기도 하시고 또 학생들앞으로 다가가시여서는 손수 어깨도 낮추어주시고 얼굴표정도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서있는 아이들에게는 웃어야 사진이 잘된다고, 한번 크게 웃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로운 사랑에 끌리여 아이들은 저도모르게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았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샤타를 누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사진기를 드신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장, 두장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하시여 벌써 40여회나 샤타를 누르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진기를 들여다보시던 대원수님께서는 《잘 보이지 않는구만!》라고 하시면서 사진기에서 눈을 떼시고 푸른 하늘가를 이윽히 바라보시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새옷을 그쯘하게 입히신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면 눈에까지 피곤이 어리시였을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르며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날 학생들을 곁에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럴 때면 나보다 아이들이 더 잘 나오게 하시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찍으신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몸소 한장한장 나누어주기까지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매 학생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건강하여 공부를 잘하라고 다정히 일러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토끼도 많이 기르고 기름나무도 많이 심고 키크기운동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학교를 떠나시였습니다.

몸소 새 교복을 마련해주시고도 그것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그리도 보고싶으시여 멀리 학교에까지 찾아오신 대원수님, 온 하루 학생들속에 계시며 일일이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영원히 우리 학생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을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가슴에 안고 대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대로 공부를 잘하여 누구나 최우등생이 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끼기르기, 기름나무심기, 키크기운동도 더 잘해나가야 합니다.



알 아 두 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학생들의 교복을 보아주시며 몸소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학교는 바로 안주시 연풍중학교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주체62(1973)년 1월 5일과 주체66(1977)년 4월 12일 이 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연풍중학교라는 이름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어주시였습니다.

주체92(2003)년 4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연풍중학교에 모시였습니다.

제2과
415그루의 수유나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선군령도의 나날을 보내시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해 봄철나무심기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학교소년단위원장인 명수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나무를 심자. 어떤 나무가 좋을가?)

잣나무, 호두나무, 분지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름나무들을 꼽아보는 그의 눈앞에는 수유나무가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어느해 가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어느 한 산기슭에 서있는 한그루의 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나무가 바로 수유나무라고, 보기도 좋고 기름이 많이 나는 나무라고 하시면서 잘 키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교시대로 수유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재배방도까지 일일이 밝혀주시였습니다.

명수는 그처럼 뜨거운 은정이 깃든 수유나무를 잘 심고 가꾸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마음다지였습니다.

명수는 그날부터 동무들과 함께 수유나무를 자래우는 방법을 익혔고 나무모도 구해왔습니다.

그들은 500여그루의 수유나무를 학교교재원에 정성껏 심고 잘 가꾸었습니다.

물도 자주 주고 거름도 주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린 나무가 추워한다고 벼짚으로 꼭 싸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해 태양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명수와 그의 동무들은 잘 자란 수유나무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양이 고운 415그루를 골랐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에 심는다는 뜻에서 415그루를 고른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잔뿌리 하나 상할세라 정성껏 떠서 뿌리둘레를 잘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가득히 싣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이 가까와올수록 그들의 눈앞에

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우리 학생소년들속에 계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학교들에 들리시여 공부를 잘하여 훌륭한 학생이 되라고 따뜻이 고무해주신 대원수님!)

생각할수록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 못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어느덧 수유나무를 실은 자동차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앞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다같이 나란히 서서 밝게 웃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윽하여 소년단위원장인 명수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삼가 보고를 드리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우리는 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수유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꿀것을 결심하고 오늘 415그루를 여기 수목원으로 가지고왔습니다. 대원수님께서 수유나무가 푸르싱싱 자라 열매를 맺는것을 보시면서 기쁨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오냐, 고맙다, 너희들이 왔느냐라고 하시며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학생들과 선생님들모두는 눈시울이 뜨거웠고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들은 대원수님을 그리며 수유나무를 수목원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친히 학교에 감사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는 수유나무와 같은 기름나무를 더 많이 심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수유나무는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집가까이에서 자라는 높이 10m정도의 잎이 지는 넓은잎키나무입니다. 원래 수유나무는 우리 나라의 일부 곳에만 있었는데 미제원쑤놈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 나무를 다시 찾아주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많이 심도록 해주시여 오늘은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안에는 씨가 있는데 씨안에는 많은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기름나무들가운데서 가장 기름이 많이 나는 나무에 속합니다. 기름은 잘 가공하여 먹기도 하고 비누도 만들수 있으며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도 쓸수 있습니다.

제3과

소년단행사에 참가할 때의 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지키는것은 집단생활의 초보적인 요구입니다.》

학생소년들은 누구나 소년단행사에 참가합니다.

소년단행사에 참가하는것은 소년단원들의 의무이고 영예이며 행복입니다.

소년단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먼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소년단행사는 교복을 입고 하는 행사도 있고 체육복을 입고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행사장에 가야 합니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몸단장을 잘해야 합니다.

목욕과 리발도 하고 신발도 깨끗이 빨아신거나 잘 닦아신고 가야 합니다.

행사준비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행사할 때 쓰는 준비품들을 잘 갖추는것입니다.

꽃다발을 쓰는 행사라고 하면 꽃다발을 잘 만들어가지고 가야 하며 꽃보라나 꽃테프를 쓰는 행사라고 하면 꽃보라와 꽃테프를 잘 준비하여가지고 가야 합니다.

소년단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질서와 규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행사장에 오고갈 때에는 규률있게 대렬을 맞추고 씩씩하게 노래부르며 거리를 행진하여야 합니다.

차를 타고 행사장에 갈 때에는 순서대로 질서있게 차에 올라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행사장에 갈 때에는 약속된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늦으면 행사에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행사가 진행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거나 잠시 휴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대렬에서 떨어져 개별행동을 하는 학생이 없어야 합니다.

위생실에 갈 때에도 알리고 가야 하며 제때에 돌아와야 합니다.

행사장안에서 껌을 씹거나 당과류나 음식물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

는 행사라고 하여 행사장안에서 침을 뱉거나 신발을 벗고 냄새를 피우는것과 같은 도덕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행사가 진행되는동안 절대로 딴 생각을 하거나 집체동작과 행동에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행사에 참가하여 책을 보거나 옆동무와 말하는 현상도 없어야 하며 조는 현상도 없어야 합니다.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행사흐름과 순서에 맞추어 일제히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꽃다발을 흔들 때에는 열광적으로 흔들어야 하며 박수를 칠 때도 열광적으로 쳐야 합니다. 구호와 만세를 부를 때에도 열광적으로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리면서 자기 앉은 주변을 깨끗이 거두어야 합니다.

행사장안에서 나올 때에는 질서있게 한사람씩 나와야 하며 먼저 나오겠다고 앞으로 끼여들거나 밀치는것과 같은 도덕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소년단행사에 참가하는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 고상한 도덕품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4과
나의 집과 우리 학교 거두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생활환경을 규모있고 알뜰히 꾸려야 합니다.》

집은 식구들이 함께 사는 곳이며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며 뛰노는 곳입니다.

이 귀중한 집과 학교를 잘 꾸리고 깨끗이 거두어야 우리들의 생활이 밝고 명랑해질수 있고 공부도 더 잘할수 있습니다.

집과 학교를 알뜰히 거두는데 습관되여야 앞으로 커서도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비롯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가꾸는 일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습니다.

집과 학교를 자기 손으로 알뜰히 거두는것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철수는 집을 알뜰히 거둡니다.

방안의 물건들을 언제나 제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질서있게 정돈합니다.

방안에 공기갈이를 하면서 먼지도 털어냅니다.

방바닥과 책상, 창턱도 깨끗이 닦습니다.
창문유리들도 알른하게 닦습니다.
마당도 말끔히 쓸어냅니다.
동네어른들은 철수를 칭찬합니다.
《철수는 공부만 잘하는가 했더니 집도 알뜰히 거두는 훌륭한 학생이구나!》

금옥이는 학교를 알뜰히 거둡니다.

교실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책상과 걸상을 보기 좋게 정돈합니다.
학교마당과 그 주변을 말끔히 쓸어냅니다.
학교의 꽃밭들도 알뜰히 가꿉니다.
어느 봄날입니다.
금옥이는 여러가지 꽃모를 가지고나와 동무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꽃밭둘레에 하얀 차돌들도 곱게 펴놓았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금옥이를 칭찬하였습니다.

《금옥동무는 정말 알뜰해!》

《금옥동무는 우리 학교거두기에서 정말 모범이야!》



○ 우리들이 쓰고 살며 공부하고있는 집과 학교를 언제나 알뜰히 거두고 꾸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실수 있게 준비하는것은 우리 학생소년들의 제일가는 례의도덕입니다.

○ 집안거두기와 학교거두기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와 영상작품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가 시켜서 할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소년들모두가 스스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덕입니다.

제5과
우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따스한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강가에서는 동네어린이들이 모여앉아 버들피리를 불고있었습니다.

이때 공부를 하고계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잠시 버들피리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있는데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리로 부는 노래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지주, 자본가놈들이 좋아하는 반동적인 노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곁에 와계시는줄도 모르고 그들은 제법 어깨까지 들썩거리며 피리를 불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너희들은 왜 나쁜 놈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고있니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물으심에 어린이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말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너희들도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가 많단다, 우리는 누구나 다 듣기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커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버들피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있던 어린이들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려보이는 한 어린이가 나서며 모두 그런 노래를 불어서 자기도 한번 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 노래는 지주, 자본가놈들이 부르는 나쁜 노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내가 한번 그런 노래를 부는것을 보라고 하시면서 버들피리로 조선민요를 부시였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피리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먼 하늘가로 울려갔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부시는 버들피리소리에 어린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노래를 불도록 깨우쳐주시고 직접 버들피리로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버들피리로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민요를 다 부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혁명가요를 배워주시였습니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먼저 부르시면 그들은 한소절, 한소절씩 따라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나쁜 노래를 멋없이 부르던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배워주신대로 우리의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은 우리 인민의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반동적인 노래들을 우리 나라에 퍼뜨리기 위해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 우리의 노래가 아닌 반동적인 노래가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부르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6과
아름다운 거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거리에서 어린 학생들이 장난을 하거나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잘 타일러주어야 합니다.》

정길이는 거리에서 공중도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지킵니다.

그는 거리에서 질서와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동무들을 보면 제때에 타일러주어 고치게 합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정길이는 동생과 함께 할머니네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길이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붉은넥타이를 매였습니다.

유치원 높은반에 다니는 동생은 색갈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들어서서 한참 걷고있을 때 《형, 저기 형 동무가 달려와.》 하고 동생이 말하였습니다.

정길이를 본 만호는 막 덤비며 뛰여오고있었습니다.

만호는 길가는 사람들속으로 달려오다가 그만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걸어오던 유치원어린이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하게 되였다는 말 한마디없이 그냥 달려오는것이였습니다.

만호의 도덕없는 행동을 보는 정길이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호동무, 길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렴.》

정길이의 말을 듣고서야 만호는 오른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만호가 다가오자 정길이는《만호동무, 거리에서 그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뛰여오면 되니? 유치원동생을 넘어뜨리고도 잘못했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라고 말하였습니다.

만호와 헤여진 정길이는 동생의 손목을 잡고 오른쪽으로 걸으면서 동생에게 차근차근 걸음길질서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꽃밭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꽃밭에 잠자리가 날아와 앉자 그것을 잡으려고 한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정길이는 그러는 동생을 타일렀습니다.

《저 꽃밭은 거리를 아름답고 환하게 한단다. 그런데 꽃밭에 들어가면 꽃밭이 못쓰게 되지 않니? 아름답고 환하던 거리가 어두워지면 넌 좋겠니?…》

동생은 알겠다고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나서 걷던 동생이《형, 나 사탕 먹을래.》 하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먹었습니다.

어느사이에 사탕을 쌌던 종이가 길에 떨어졌습니다.

《애, 길을 가면서 먹으면 안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니? 그렇게 종이를 버리면 아름다운 거리가 어떻게 되겠니?》

정길이는 동생이 버린 사탕종이를 주어서 길옆에 있는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걸음을 옮겨 퍼그나 갔을 때였습니다.

길옆의 잔디밭에서 1학년 학생들이 뽈을 가지고 놀고있었습니다.

정길이는 그들에게 다가가 잔디밭에서 나오게 한 다음 다시 동생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생은 물었습니다.

《형, 잔디밭에서 놀면 안되나?》

《잔디밭도 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가꾼거란다. 그런데 잔디밭에서 놀면 잔디밭이 다 못쓰게 되지 않니?》

정길이는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동안 동생에게 거리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하나하나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모두 거리에서 질서와 도덕을 잘 지킬뿐아니라 어린 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주는 훌륭한 학생이 되여야 합니다.

제7과
영화관에 가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교통질서를 비롯한 사회질서도 지키고 극장, 영화관, 도서관, 공원들에서 공중도덕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광수네 분단동무들은 영화관에 가면 언제나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킵니다.

어느 토요일이였습니다.

광수네 분단동무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씩씩하게 노래부르며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영화관문이 열리자 분단동무들은 아래학년 동생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 한줄로 서서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간 그들은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광수의 자리는 가운데였습니다.

(참 좋은 자리인데… 영화를 잘 볼수 있게 됐어.)

광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앉아 가지고온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광수는 문득 선생님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어디에 앉으셨을가?)

광수는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문옆에 있는 뒤자리에 앉아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좋지 못한 자리에 앉으셨구나. 선생님을 좋은 자리에 모시자.)

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갔습니다.

《선생님, 저기 자리가 있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광수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괜찮아요. 광수학생, 그냥 앉아요.》

그래도 광수는 기어이 선생님을 자기 자리에 모시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였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영화를 보았습니다.

동무들은 주인공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광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관차를 지켜낸 주인공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자기도 주인공처럼 용감한 소년단원이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화를 보던 동무들이 하나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소리는 영화를 먼저 본 동무가 옆에 앉은 동무에게 다음장면의 내용을 말해주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일가?…)

광수는 그 동무가 민망스러웠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쉿, 조용해!》 하고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이윽고 영화가 끝났습니다.

불이 켜지자 광수는 동무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단동무들은 앉았던 자리에 종이쪼각들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살펴보고 문곁에 있는 동무들부터 차례로 질서있게 영화관을 나섰습니다.



영화관에서 지켜야 할 규범

① 영화관에 가서 아는 동무를 만나겠다고 큰소리로 찾거나 사람을 밀치면서 지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② 관람이 시작된 다음 자기 자리를 찾겠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분위기를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③ 관람을 하면서 자막에 새겨지는 글을 큰소리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④ 관람을 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바닥에 휴지를 버리지 말며 신발을 벗거나 발을 의자우에 올려놓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8과
언제나 제힘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한번 하자고 결심한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결단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든지 제힘으로 해나가는 품성을 키우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커서도 남을 쳐다보지 않고 제힘으로 맡겨진 과업을 척척 해낼수 있습니다.

영남이네 학급에서는 오늘 진흙을 가지고 뜨락또르를 만드는 솜씨경연이 있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훌륭한《천리마》호 뜨락또르를 만들어 솜씨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남이만은 래일 다시 만들어가기로 선생님과 약속했답니다.

영남이는 집으로 돌아오자 다시금 진흙을 펴놓고 뜨락또르를 만들어봅니다.

그런데 좀처럼 뜨락또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체는 비슷하게 되였지만 바퀴의 균형만은 맞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다른 앞바퀴와 뒤바퀴를 잘 조절하여 붙이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리

다가 자빠지고맙니다. 그런데 이번엔 겨우 붙여놓았던 운전대마저《뚤렁》하고 떨어졌으니 정말 야단입니다.

영남이는 당장 그만두고싶은 생각이 치밀어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과의 약속을 어길수는 없었습니다.

영남이는 울상이 되였습니다.

(야, 누나가 있었으면…)

이때 정말 중학교에 다니는 누나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젠 됐구나!)

영남이는 누나를 보자 《후—》 하고 길게 숨을 몰아쉬였습니다.

《누나, 뜨락또르 좀 만들어줘.》하고 영남이는 누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안돼, 난 공부를 해야 해!》

누나는 딱 잡아떼였습니다.

누나는 영남이가 무슨 일이든 제힘으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매번 성화먹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을 준비해야 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놀다가 어두워서야 진흙을 찾았습니다. 울상이 된 영남이를 보고만 있을수 없어 누나가 진흙을 파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뜨락또르를 완성하지 못하고있으니 누나도

정말 안타까왔습니다.

누나는 영남이를 타일렀습니다.

《영남아, 넌 언제나 제힘으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비는데 버릇이 되였구나. 그러니 손재간도 늘지 않고 묘리도 없단 말이야.》

영남이는 누나의 말을 들으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손으로 뜨락또르를 만들 결심을 하고 다시 달라붙었습니다.

누나는 영남이의 곁에 있었지만 이전처럼 제가 직접 손을 대주지는 않았습니다.

영남이는 누나에게 방법을 물어가며 끝내 멋있는 뜨락또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누나는 영남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습니다.

《누나, 이제는 다 내 힘으로 할테야!》

영남이는 마음을 든든히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하나 제힘을 믿고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오늘 영남이는 《꼬마재간둥이》로 학교에 소문이 들썩하답니다.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제힘으로 해내는 품성을 키워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회주의건설자가 되여야 합니다.

제9과
빠스를 탈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건늠길이 아닌데로 건너다니거나 빠스리용질서를 어기고 앞질러타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빠스타는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느날 경남이는 동생과 함께 할머니네 집에 가려고 빠스정류소에 나갔습니다.

정류소에는 사람들이 질서있게 줄을 서서 빠스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마침 빠스가 와 멎었습니다.

《형, 빨리 타자.》

경호는 형님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경호야, 그러면 안돼. 다들 줄을 서서 차례로 오르는데 우리만 먼저 타겠다고 끼우면 되겠니?》

경남이는 동생과 함께 빠스줄에 섰습니다.

빠스가 손님들을 다 태우고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달려오더니 떠나는 빠스에 매달리였습니다.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쩔려구.》

《무슨 학생이 저럴가?》

정류소에 서있던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욕도 하였습니다.

《야, 꽤 날랜데!》

경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호야, 그건 날래다구 칭찬할 일이 아니야. 저 애때문에 뻐스가 떠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갈 길이 늦어지지 않았니? 저렇게 뻐스에 매달리다가 떨어지면 상할수도 있고 차들이 오가는데 지장을 준단다.》

형님의 말을 들은 경호는 알았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잠시후 또 한대의 뻐스가 와 멎었습니다.

경남이와 경호는 순서대로 뻐스에 올랐습니다.

뻐스에 오른 그들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뻐스표를 냈습니다.

뻐스가 떠나자 창결에 앉은 경호는 두다리를 흔들며 흥얼흥얼 코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며《광철아!》하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자기반 광철이를 보았던것입니다.

《애, 뻐스안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치면 되니?》

경남이는 동생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경호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뻐스가 다음 정류소에 멎었을 때였습니다.

뻐스에 오른 사람들가운데는 애기어머니와 영예군인아저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안에는 빈 자리가 없었습니다.

경남이는 애기어머니가 곁에 오자 자리에서 얼른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괜찮다. 어서 앉아라.》

《전 일없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고맙다. 참 기특하구나.》



애기어머니는 웃음어린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애기어머니와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경호는 형님처럼 뒤따라 일어서며《아저씨, 여기 앉으십시오.》하고 영예군인아저씨에게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뻐스안의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경남이네 형제를 바라보며 칭찬하였습니다.

할머니네 집가까이에 이르자 경남이는 경호의 손목을 잡고 내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뻐스가 정류소에 멎자 경남이와 경호는 덤비지 않고 순서대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table>
<tr><td rowspan="2">빠스를 탈 때의 규범</td><td>정류소에서</td><td>① 빠스정류소에 오면 순서대로 줄을 서서 책을 보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② 정류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침을 뱉지 말며 휴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③ 빠스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차도로에 내려서지 말아야 합니다.
④ 달리는 차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⑤ 빠스표를 미리 준비하고있다가 빠스에 오르면서 내야 합니다.</td></tr>
<tr><td>빠스안에서</td><td>① 영예군인, 애기어머니, 늙은이를 비롯하여 웃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② 의자에 발을 올려놓지 말며 빠스안의 시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③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말며 동무를 찾거나 휴지 같은것을 내던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④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에는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해야 합니다.</td></tr>
</table>



빠스타는 질서를 위반하여 단속되면 벌금을 내는것과 같은 법적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10과
렬사묘를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기풍입니다.》

렬사란 혁명투쟁이나 애국사업을 하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였거나 빛나는 생애를 마친 우리 혁명의 선배들이며 투사들입니다.

렬사들가운데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일제놈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시는 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희생된 용감한 인민군용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오늘의 선군시대 총폭탄영웅들과 애국렬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면서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은 렬사들의 영웅적투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소년들은 렬사들의 투쟁업적

을 잘 알고 그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명절날을 비롯하여 뜻깊은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렬사들을 잊지 않고 렬사묘를 찾아 례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렬사들에 대한 우리 학생소년들의 도리이고 례절입니다.

철민이네 반동무들이 렬사묘를 찾는 날입니다.

모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손에는 꽃송이와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렬사묘에 도착한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옷매무시를 바로하였습니다. 이어 가지고온 꽃송이와 꽃다발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정중히 렬사묘에 드렸습니다.

다음 렬사들을 추모하여 말없이 머리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렬사묘를 돌아볼 때였습니다.

몇동무들이 큰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철민이는 그들에게 떠들면 안된다고 조용히 타이르고나서 비문앞으로 다가가 비문내용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철민이를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비문내용을 읽기도 하고 수첩에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들모두는 렬사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후

더워졌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빛나는 생애를 마쳤다고 쓴 비문의 내용을 새기며 렬사들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 자기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결심을 다졌습니다.



○ 혁명의 수도 평양의 대성산주작봉마루에는 혁명렬사릉이 있습니다. 이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반신상이 생전의 모습그대로 동상으로 정중히 모셔져있습니다. 그리고 김혁, 차광수선생님을 비롯한 항일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이 동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렬사들은 모두 금별로 떠받들리우고 붉은 기폭에 숭엄히 감싸여있습니다.

○ 평양시 교외의 신미리언덕에는 애국렬사릉이 있습니다.

애국렬사릉의 묘비에는 렬사들의 돌사진이 새겨져있습니다.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최상으로 훌륭하게 꾸려주시였습니다.

○ 렬사묘가 있는 곳에서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렬사묘에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렬사묘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잔디를 밟거나 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렬사묘주변의 나무를 꺾거나 떠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11과
우리의 희망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소년단원들의 미래는 끝없이 넓고 밝습니다.》

졸업학년이 된 영희네 반동무들은 조국의 앞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자기들의 희망을 생각해 봅니다.

맑게 개인 어느 봄날입니다.

학교 뒤동산에 올라 자연관찰수업을 마친 영희네 반동무들은 선생님과 함께 고향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담한 살림집들과 학교, 병원, 유치원과 탁아소 그리고 마을의 소형발전소와 양어장, 그앞으로 펼쳐진 논밭과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핀 과수원, 멀리 앞산으로는 흰구름떼같이 흘러가는 염소무리들…

이 모든것은 그들에게 희망의 푸른 꿈을 더해주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였습니다.

설레이는 가슴을 누를길 없었던지 꼬마시인 영희가 시를 읊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나는 무엇이 될가요
선생님도 되고싶고 의사도 되고싶어요
주먹만 한 벼알, 동이만 한 사과
척척 만드는 과학자도 되고싶고
살기좋은 내 고향 아름다운 우리 마을
널리널리 소개하는 신문기자도 되고싶어요

하지만 나는 나는 되고싶어요
저 푸른 하늘 높이높이 나는
녀성비행사 되고싶어요
내 나라, 내 조국 지켜싸우는
김정은원수님의 군대가 되고싶어요

영희의 시를 주의깊게 듣고있던 영민이가 불쑥 일어나며《뭐, 녀성비행사? 남자들도 비행기를 타기 힘들다고 하던데, 체!…》하고 놀려주는것이였습니다.

이때 정남이가 말했습니다.

《영민동무, 녀자들도 비행사가 될수 있어. 나도 비행사가 되겠어. 그래서 영희동무와 나란히 저 하늘을 날아볼테야. 길영조아저씨처럼 비행사영웅이 되겠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선생님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정남학생의 말이 옳아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비롯한 녀성유격대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락하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녀성비행사들도 용감하게 잘 싸웠답니다.

선생님은 녀성비행사가 되여 조국을 지켜싸우겠다는 영희학생의 희망을 열렬히 지지해요.》

순간 정남이를 비롯한 남동무들이 요란한 박수로 영희를 축하해주었습니다.

영민이가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영희동무, 날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난 용감한 땅크병이 될테야. 그래서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맨 선참으로 땅크를 몰고나가 원쑤놈들을 짓뭉개버리겠어.》

그는 두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엔 성국이의 차례였습니다.

성국이는 로동자가 없이도 공장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것이였습니다.

동무들의 눈이 모두 휘둥그래졌습니다.

녀동무들은 성국이더러 로동자가 없이 어떻게 공장을 돌리는가고 따져물었습니다.

남동무들도 성국이의 말을 믿으려하지 않았습니다.

성국이는 하나하나 재미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너희들도 콤퓨터를 알겠지. 콤퓨터로 기계를 움직이면 로동자가 없이도 공장을 돌릴수 있어. 내가 그 콤퓨터박사가 되겠단 말이야!》

성국이는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훌륭한 희망을 안고있었습니다.

이날에 펼쳐놓은 희망이야기들가운데는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는 과학자, 기술자가 되겠다는 동무들, 해마다 풍년을 마련하는 농장벌의 주인이 되겠다는 동무들, 쇠물을 쾅쾅 뽑아내는 용해공이 되겠다는 동무들,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양어를 잘하는데 이바지하겠다는 동무들, 세계적으로 이름떨치는 체육선수가 되겠다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희망이야기를 다 듣고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모두에게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김정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마음만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의 희망을 꽃피울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모두가 래일의 자기들의 모습을 그려보는듯 기쁨과 즐거움에 넘쳐있었습니다.

제12과
사람들과 대렬앞을 지나갈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은 사람들과 대렬앞을 지나갈 때 례절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앞을 지나갈 때의 례절

학생들은 웃사람들이 서있는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히 지나가야 합니다.

길목이 좁아 지나가기 힘들 때에는《미안하지만 좀 지나가겠습니다.》,《지나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여야 합니다.

이때 웃사람들이 한쪽으로 나서주거나 지나가도 된다고 하면《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길이 좁다고 하여 웃사람들이 마주선 사이로 아무말도 없이 지나가는것은 도덕이 없는 행동입니다.

대렬앞을 지나갈 때의 례절

학생들은 대렬이 서있는 앞을 지나갈 때 몸가짐과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대렬이 서있을 때에는 대렬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렬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반드시 대렬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는 대렬책임자에게 먼저 인사를 한 다음《미안하지만 대렬앞을 지나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허락을 받으면《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조심히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대렬과 맞다들었을 때에는 대렬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가는것이 옳은 례절입니다.

그러나 대렬이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먼저 빨리 지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례절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13과
부름말을 례절있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말에는 례의를 나타내는 표현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웃사람을 존경할 때 쓰는 말도 있고 동무들사이에 스스럼없이 쓰는 말도 있으며 아래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말도 있습니다.》

말을 례절있게 하는데서 부름말을 옳게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름말에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웃사람과 동무들, 아래사람들을 부를 때에는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 알맞는 부름말을 써야 합니다.

동무들을 찾을 때는 이름뒤에 《동무》라는 말을 붙여 불러야 합니다.

《동무》라는 말은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같이하는 학생들사이에 쓰이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동무》라는 말속에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자는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동무》라는 말을 붙여쓰지 않고 그저 이름만

부르거나 이름대신에 《야》, 《여》 하고 찾는것은 동무들을 낮추보는것으로 됩니다.

소년단조직이나 학급을 책임진 동무들을 찾을 때는 《분단위원장동무》, 《학급장동무》라고 부르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동무들을 부를 때는 《장철동무》, 《철진동무》, 《순희동무》 등 다정하고 친근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는 《옥이야》, 《철수야》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을 부를 때 별명이나 속된말로 불러서는 안됩니다. 별명이나 속된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동무들을 부른다면 그들의 기분을 흐리게 할수 있습니다.

별명이나 속된말로 동무들을 부르는것은 동무를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집식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집에서 식구들을 부를 때에는 사투리를 쓰지 말고 문화어로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를 《아바지》, 《어머니》를 《오마니》,《오만》으로 부른다면 아름다운 우리 말을 바로하지 못하는것으로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웃어른들을 부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삼촌》, 《이모》라고 불러야 합니다.

한집안사람들사이에도 이처럼 례절바르게 부름말을 잘 골라쓰면 가정에 더 화목하고 다정한 분위기를 세우게 됩니다.

동무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찾을 때에는 자기 동무나 그 동생의 이름을 붙여 《옥별이 아버지》, 《수철이 어머니》라고 불러야 합니다.

선생님을 부를 때에는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자세를 바로가지고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교장선생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도원선생님, 책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교실청소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말하여야 합니다.

웃사람들을 찾을 때는 큰소리로 부르거나 반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웃사람이 먼거리에 있을 때에는 멀리서 큰소리로 부를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몸가짐을 바로하고 조용히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것이 웃사람들을 존경하는것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부름말을 례절바르게 정확히 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제14과
토끼의 후회

아름다운 동산에 사는 토끼와 너구리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숲속에 놀러가도 손잡고 함께 가고 잘 익은 산열매가 생겨도 꼭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달밤이였습니다.

노루네 동산에 갔던 토끼가 집으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염소할아버지네 오이밭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오이잎사귀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밭고랑을 뛰여넘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이를 훔치는 도적놈이 틀림없구나!)

토끼는 얼른 풀숲에 몸을 숨기였습니다.

두귀를 쫑긋 세운 토끼는 빨간 눈알을 굴리며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땀흘려 오이밭을 가꾸던 염소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토끼는 염소할아버지네 오이를 훔쳐가는 나쁜놈을 꼭 붙잡고야말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얼마후 웬놈이 오이밭에서 훌쩍 뛰여나왔습니다.

순간 토끼는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글쎄 자기 동무인 너구리가 큼직한 오이를 메고 산기슭쪽으로 내빼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구리가 남의 오이를 훔치다니? 이럴수 있나?)

토끼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뒤따라가서 혼쌀을 내주고싶었습니다.

울컥 치미는 분한 생각으로 몇발자국을 뛰여가던 토끼는 문득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오이는 오이인거고… 그것때문에 우리들의 친한 사이가 벌어질수 없지.

에익, 나밖에 보지 못했는데 못본셈치고 입을 다물자.)

이렇게 생각한 토끼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염소할아버지네 오이를 훔치는 도적놈을 잡았다는 소문이 동네방네에 퍼졌습니다.

토끼는 동무들과 함께 염소할아버지네 오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너구리가?)

토끼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너구리는 염소할아버지가 놓은 덫에 걸려 어쩔바를 모르며 눈물을 흘리고있었습니다.

염소할아버지는 허연 수염을 흔들며 너구리를 꾸짖었습니다.

《요 발칙한 녀석, 나쁜짓을 한 네녀석을 우리 동산에서 내쫓고말테다!》

토끼는 눈물을 흘리는 너구리를 보며 가슴이 아프도록 후회하였습니다.

(나의 눈먼 사랑이 결국 너구리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아, 친한 사이일수록 잘못을 제때에 타일러주어야 하는걸…)

토끼는 고개를 푹 숙인 너구리를 그냥 볼수가 없었습니다. 너구리를 붙잡고 함께 울고싶었습니다.

토끼는 주저하다가 염소할아버지앞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꾸짖어주세요. 너구리가 저렇게 된건 동무의 나쁜짓을 보고도 못본척 한 저의 잘못이예요.》

염소할아버지는 토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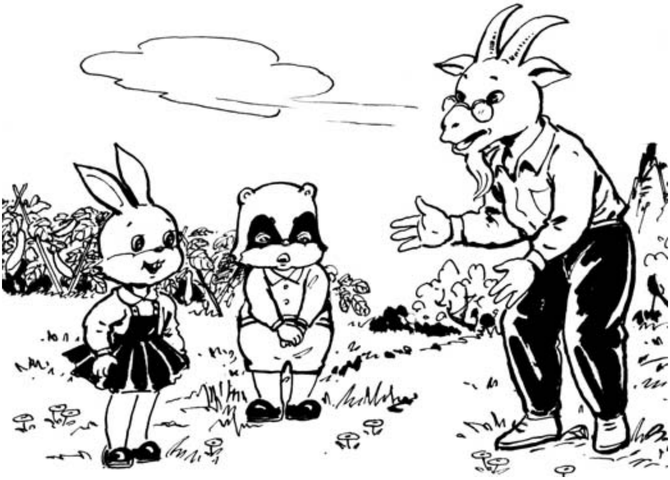
《네 말이 옳다. 친한 사이일수록 잘못을 제때에 일깨워주어야 한다.

동무의 잘못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하고 도와주는 동무가 진짜동무란다. 알겠느냐?》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토끼는 너구리의 손목을 다정히 잡고 염소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후부터 토끼와 너구리는 서로의 잘못을 제때에 타일러주고 고쳐주는 참답고 진실한 동무로 되였습니다.



제15과
동물원에 가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타일러주어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긴 남일이는 언제나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키는데서 모범입니다.

맑게 개인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남일이는 동생과 함께 동물원구경을 갔습니다.

남일이와 그의 동생은 줄을 서서 표를 산 다음 먼저 원숭이동산으로 갔습니다.

원숭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참이나 재미나게 보고있던 동생 명일이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여 원숭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놈이 닝큼 받아서 날랜 동작으로 종이를 벗기고 사탕알만 입에 홀딱 집어넣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애가 종이에 싼 주먹만한것을 던졌습니다.

다른 원숭이가 달려와서 그것을 집어들고 종이를 벗겨 입에 가져가더니 인차 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원숭이가 먹지 않는 귤껍질이기때문이였습니다.

원숭이는 성이 난듯 나무로 올라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숭아, 어서 내려오렴!》

《빨리! 빨리!》

아이들이 법석 떠들었습니다.

이때 관리원누나가 나타났습니다.

《애들아, 원숭이들에게 먹을것을 망탕 주면 병에 걸릴수 있고 원숭이동산도 어지러워진단다. 더구나 먹을수 없는것을 주면 원숭이가 성나서 재롱도 피우지 않는단다.》

관리원누나의 말을 들으면서 명일이는 원숭이가 노는 모습을 보려고 아무것이나 막 던져주는것이 왜 나쁜가를 잘 알게 되였습니다.

다음에는 오리사로 갔습니다.

목이 긴 게사니며 여러가지 색갈의 오리들이 물우에 둥둥 떠서 헤엄을 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긴 막대기로 목을 누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게사니가 놀라서 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저 애들이?)

동생들의 행동을 본 남일이는 그들을 표식판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애들아, 동물원은 장난하며 노는 곳이 아니란다. 표식판에 뭐라고 씼니? 동물원에 와서는 표식판에 씌여있는것을 보고 하나하나 배워야 한다. 그리고 별난 동물이라든가 동물이 노는것이 우습다고 해서 법석 떠들거나 놀래우지 말고 조용히 보아야 한다. 너희들처럼 막대기나 돌로 동물들을 놀래우면 자기 재간을 다 부리지 못하게 된단다.》

동생들은 잘못을 알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오리사를 돌아본 남일이는 명일이와 함께 범사로 갔습니다.

범사에는 사람들이 두겹세겹 둘러서있었습니다.

명일이는 범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틈을 헤집고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일이는 명일이의 손목을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명일아, 너처럼 범을 보겠다고 사람들속을 마구 헤집고 앞으로 나가면 안돼.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도덕없는 행동이란다. 덤비지 말고 차례로 보자꾸나.》

명일이도 잘못을 깨달은듯 싱긋 웃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잠시후 범사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일이는 큰 범 두마리가 새끼를 가운데 놓고 재롱을 부리는것을 보겠다고 바투 다가섰습니다.

순간 남일이는 얼른 명일이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이때 관리원누나가 명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범이나 사자를 볼 때는 바투 다가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동물원에서 꼭 지켜야 할 질서입니다.》

명일이는 몸가짐을 바로하고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날 남일이와 그의 동생은 왜 동물원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구경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제16과
야영소식당에서의 질서와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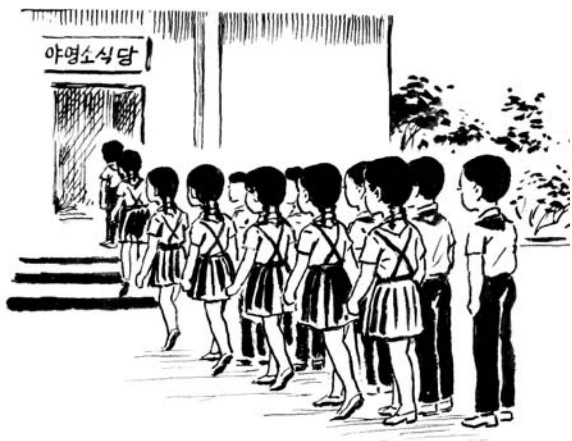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며 례절을 잘 지키는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야영소에서 제정된 질서와 도덕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영소식당에서 질서와 례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가요?

야영소식당에 드나드는 질서

식사시간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리면 야영생들은 모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대렬맞춰 노래부르며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대렬이 야영소식당앞에 멈춰서면 한줄로 질서있게 식당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렬에서 떨어져 개별적으로 식당으로 가거나 드나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식당안으로 들어가면 한사람씩 순서대로 식탁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먼저 식탁에 앉겠다고 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올 때도 조용한 발걸음으로 한사람씩 나와야 합니다.

식사할 때의 례절

식탁에 마주앉은 야영생들은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가져다달라고 재촉하는것은 도덕이 없는 행동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남의 음식그릇을 기웃거리며 넘겨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곁에 계시면 먼저 식사하실것을 권해야 합니다.

숟가락과 저가락은 오른손에 쥐고 밥그릇은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놓고 식사하여야 합니다.

식사할 때 다같이 쓰게 된 양념그릇에 자기가

쓰는 숟가락으로가 아니라 그 그릇들에 놓여있는 숟가락으로 필요한만큼 떠내여 리용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밥과 국, 찬을 적당히 떠넣고 입을 다물고 꼭꼭 씹어야 합니다. 이때 소리를 내거나 음식을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들면서 수저를 부딪치는 소리, 음식그릇을 긁는 소리를 내는것은 식사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례절없는 행동입니다.

식사할 때 음식을 입에 넣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다 든 다음에는 수저를 핥거나 입술을 빨지 말아야 하며 빈그릇을 아무데나 망탕 밀어놓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채 넘기지 않고 일어서서 입을 놀리거나 되는대로 입을 닦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것도 옆동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식사를 다 하고는 조용히 입가심을 한 다음 손수건으로 입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식당안의 비품관리질서

식당안에는 여러가지 비품들이 있습니다.

야영생들은 식당안의 식탁과 의자를 흠집이 가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하며 식사를 하고는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식탁밑에 밀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그릇과 물고뿌, 양념그릇들을 깨뜨리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합니다.

식당안의 화분, 어항 같은것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야영기간 야영소식당리용에서 질서와 례절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제17과
공원에서 얻은 돈가방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의 새 세대들에게 물욕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돈과 물건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는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깨끗한 마음을 흐리게 하는 제일 부끄러운짓입니다.

어느날 하루공부가 끝난 뒤였습니다.

순남이는 학교적으로 진행되는 솜씨전람회에 내놓을 그림을 그리려고 공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었습니다. 그가운데는 우리 나라를 찾아온 외국사람들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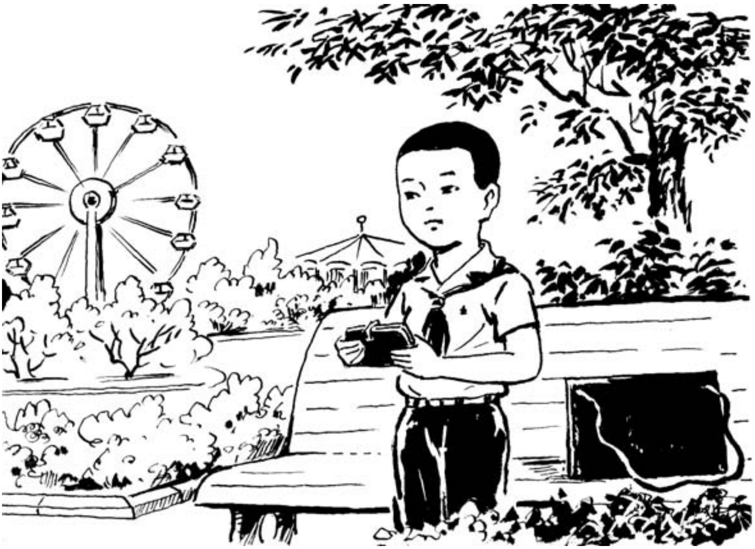
순남이는 우리 나라의 국화로 널리 알려진 목란꽃을 정말 멋있게 그렸습니다. 공원안의 목란꽃과 신통히도 같아 마음이 흐뭇해진 순남이는 잠시 쉬려고 나무그늘밑 의자에 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밑에 자그마한 손가방이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떨구었을가?)

순남이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남이가 그림에 열중하고있을 때 모두들 공원에서 자리를 뜬 모양이였습니다.

(다시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순남이는 두눈을 깜빡거리며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 이제는 해가 서쪽 산너머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어떻게 할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욕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였지. 그러니 물건이나 돈을 탐내는것은 저만 잘살려는 아주 나쁜짓이다!… 꼭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순남이는 가방을 잃어버린 주인이 안타까와할것을 생각하며 꼭 찾아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도 이름도 모르고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야단이였습니다.

순남이는 혹시 가방안에 증명서 같은것이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순남이는 고리를 살며시 당겨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안에는 증명서 같은것은 없고 보지 못하던 다른 나라의 돈이 가득차있었습니다.

(이 가방을 떨군 사람은 분명 어느 외국사람이 틀림없다.)

순남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달음으로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순남이의 이야기를 듣고나서 모범소년단원답게 참 좋은 일을 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시였습니다.

다음날이였습니다.

다 잃어버린줄 알았던 돈가방을 다시 받아쥔 외국사람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속에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자본주의나라에서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는다는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돈을 빼앗아내려고 강도들이 날뛰고 친한 사람들사이에도 서로 속이고 죽일내기를 하며 부모자식사이에도 칼부림을 하지요. 참으로 주체조선에서는 아이들까지도 남의 불행을 먼저 생각하고 잃어버린 돈까지도 주인을 찾아주는 고운 마음을 가졌으니 이런 나라를 처음 봅니다.

위인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주체조선의 꽃봉오리들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외국사람은 서로 돕고 위하는 주체조선은 사람들모두가 깨끗한 마음을 지닌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라고 하면서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학교속보판에는 순남이의 아름다운 소행이 크게 나붙었습니다.

《정말 착한 동무야!》

《순남이는 참 좋은 동무야!》

동무들은 모두가 순남이처럼 돈과 물건을 탐내지 않는 훌륭한 도덕품성을 키워나갈것을 굳게 마음다졌습니다.

제18과
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전적지답사를 성과적으로 하려면 규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혁명사적지를 답사할 때에는 정중한 자세로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어느날이였습니다.

성호네 분단동무들이 탄 뻐스는 푸른 숲이 우거진 깊숙한 골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은동이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야!》

모두가 환성을 올리며 앞을 내다보니 밝은 해빛을 받아안은 사적지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령군봉으로부터 줄줄이 뻗어내려온 높고낮은 산발들은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 반겨주는듯 하였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봉우리와 골짜기마다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빛나는 사적이 깃들어있습니다.

참으로 유서깊은 사적지에 들어서는 동무들의 마음은 한없이 숭엄해졌습니다.

어느덧 뻐스가 교양마당앞에 와 멎자 모두 질서있게 내렸습니다.

모두가 넥타이도 바로 매고 옷매무시도 단정하게 하였습니다.

분단기수 길숙이가 분단기발을 들고 나서자 모든 동무들이 그 뒤에 대렬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대렬을 한바퀴 돌아보시고 사적지답사에서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활동업적이 깃들어있는 어은혁명사적지를 답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적지를 답사하는것만큼 한사람이라도 개별행동을 하거나 대렬에서 떨어지면 답사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해설원이 안내하는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적관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과 옷에 묻은 먼지를 말끔히 털어야 합니다.

해설을 들을 때에는 몸가짐을 바로하고 귀담아들어야 하며 쓸데없이 왔다갔다하거나 동무들끼리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들을 때와 사적물을 볼 때에는 중요한것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후에 되새기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주의깊게 듣고있는 학생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어은혁명사적지의 사적물들과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모두 위대한 대원수님의 혁명활동업적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망탕 손을 대서 손상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답사를 마칠 때까지 정중하고 질서있게 행동하여야 하겠습니다.》

성호네 분단동무들은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행동했습니다.

분단동무들은 해설원이 이야기할 때 더 가까이 가겠다고 덤비지도 않았고 사적물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분단동무들이 사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령군봉에 오를 때였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던 대렬이 점점 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호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동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렬이 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장을 줄수 있어!》

성호는 대렬을 좁히며 앞장서걸었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땀에 푹 젖었으나 누구 하나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령군봉에 올라선 그들은 대렬을 다시 정돈하였습니다.

모두 정중한 자세로 령군봉사적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며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읊으신 시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를 수첩에 적어넣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분단결의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 동무들이 앞을 다투어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이윽고 모임이 끝나자 동무들은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거두었습니다.

이날 성호네 분단동무들은 학교에서부터 정성껏 떠가지고온 꽃나무들을 혁명사적지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꽃나무둘레에 하얀 차돌들도 깔아주었습니다.

성호네 분단동무들은 답사를 끝내고 뻐스에 오르는 순간까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켰습니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를 답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재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성냥과 라이타와 같은 불이 달릴수 있는 물건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며 사적지나 전적지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장난을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19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의 례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사람들사이의 정을 두터이하고 동지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과정에 동무들이나 친척, 집안식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날수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는 반가움과 기쁨을 표시하는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동무들과 가족, 친척들사이에 정을 두터이 할수 있고 화목과 단합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동무들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의 례절

어느날 함께 공부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정희는 설향이가 보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설향동무!》

《정희동무!》

《그새 잘 있었니? 설향동무가 정말 보고싶었어.》

《그래? 나도 정희동무가 몹시 보고싶었어. 그동안 앓지는 않았니?》

그들은 너무 기뻐 손을 맞잡고 어쩔줄 몰랐습니다.

방학을 끝내고 학교에 등교한 날 만수와 경식이가 서로 만났습니다.

《경식동무, 오래간만이구나!》

《반갑구나, 만수동무!

방학기간 좋은 일을 많이 했다지. 그럴줄 믿었어.》

《경식동무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더구나. 정말 기뻐.》

친척을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의 례절

멀리 농촌에서 사는 고모가 오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미영이는 오래간만에 고모를 만나게 되여 무척 기뻤습니다.

미영이는 고모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고모, 안녕하셨어요? 미영이예요.



고모가 정말 보고싶었어요.》

미영이는 고모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고모, 여기 앉으세요.》

미영이는 고모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잘 익은 복숭아를 가져다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오신다기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고모, 이번엔 며칠 푹 쉬다 가세요.》

미영이는 부모님들이 돌아올 때까지 고모와 이야기도 하고 사진첩도 보여드리며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집안식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의 례절

병원에 입원하시였던 할아버지가 퇴원하신 날입니다.

현아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하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병치료를 잘하셨습니까? 건강해지신 할아버지를 보니 정말 기뻐요.》

현아는 할아버지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가져다드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기쁜 일들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멀리 출장을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신 날입니다.

영미는 아버지의 가방을 받으며 인사하였습니다.

《출장길에 앓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보고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잘하여 5점최우등생이 된 자랑을 펼쳐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제20과
대동강반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여름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날도 쉬지 않으시고 평양시주변의 어느 농촌마을을 찾아주시였습니다.

그때 동뚝옆 백양나무그늘아래에서 10여명의 소년들이 농민들앞에서 선전대활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여 조용히 농민들뒤에 앉으시였습니다.

선전대활동이 끝나자 어머님께서는 소년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며 선전사업을 아주 잘했다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소년들을 데리시고 대동강반의 동뚝에 오르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소년들을 자신의 둘레에 앉히신 다음 오늘은 너희들이 농민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했으니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들은 《야!》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동단사업을 지도하시던 그때를 더듬어보시는듯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다가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시였습니다. 왕위거우(왕우구)아동단원들이였던 룡남이와 명숙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왕위거우(왕우구)아동단원들속에는 룡남이와 명숙이가 있었습니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어느날 아동단조직으로부터 유격대에 통신쪽지를 전달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일제놈들이 눈을 부릅뜨며 어디로 가는가고 묻더니 그들의 몸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의 머리태를 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속이 바질바질 타는것 같았습니다. 명숙이의 머리태안에는 통신쪽지가 있었던것입니다.

이 위급한 순간 룡남이는 일제놈을 안고 쓰러지며 소리쳤습니다.

《명숙아, 빨리 먹어치워! 빨리!》

명숙이는 날쌔게 머리태안에 넣었던 통신쪽지를 입안에 넣었습니다.

일제놈은 명숙이의 입안에 더러운 손가락을 밀어넣었습니다.

명숙이는 그놈의 손가락을 힘껏 깨물었습니다. 놈은 죽는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을 쥐고 돌아갔습니다. 명숙이는 그때를 놓칠세라 재빨리 통신쪽지를 삼켜버렸습니다.

일제놈들은 그들을 악착하게 고문하면서 비밀만 대주면 상도 주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붉은 기발아래서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맹세한 룡남이와 명숙이는 놈들의 악착한 고문도 얼림수도 이겨내고 아동단원의 영예를 지켜냈습니다.

놈들은 비밀을 끝내 알아낼수 없게 되자 그들을 사형장으로 끌고나갔습니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놈들이 가슴에 내댄 총구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제놈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비밀만 대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룡남이와 명숙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놈들은 이제야 아이들이 굴복하는줄로 알았던지 어서 말하라고 하면서 징글맞게 웃어댔습니다.

이때 룡남이가 가슴을 쭉 펴고 두손을 높이 쳐들면서 웨쳤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뒤이어 명숙이도 웨쳤습니다.

《조선혁명 만세!》

이것이 룡남이와 명숙이가 하겠다고 한 마지막 말이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소년들은 그대로 굳어진듯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크나큰 충격을 받아안고 앉아있는 소년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룡남이와 명숙이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히 싸울수 있었겠니?

그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은 기어이 독립되고 인민들이 잘사는 새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것을 굳게 믿었기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오직 한분 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여야 한다.》

《알았습니다.》

소년들은 힘차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대동강반에서 항일아동단원들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도 우리 소년단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습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뜻대로 항일아동단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언제나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지킬줄 알

아야 하며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로 자라나야 합니다.



항일의 소년영웅들을 잊지 말자

김기송, 김금순, 전기옥, 목윤식, 강룡남, 박명숙, 박호철, 허정숙, 리광춘, 김득봉 등 많은 아동단원들이 항일의 소년영웅들로 빛나고있습니다.

《나를 총으로 쏘지 말고 날창으로 죽여달라. 그리고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

이것은 통신련락임무를 수행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사형장으로 끌려간 훈춘의 아동단원 전기옥소년이 마지막순간 경찰놈들에게 한 말입니다.

항일아동단원들은 모두 이렇게 용감히 싸운 소년영웅들이였습니다.

제21과
병문안 갔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은 말그대로 배우는 사람인것만큼 언제 어디서나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식이는 동무들과 함께 구역인민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전 철수가 급성충수염수술을 받고 입원해있었기때문입니다.

정식이와 동무들은 먼저 병원접수실부터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학급 철수동무가 입원했기에 찾아왔습니다.》

정식이가 접수실 간호원누나에게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간호원누나는 《너희들 참 용쿠나!》라고 칭찬하며 철수가 입원하여있는 호실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동무를 만나보고 인차 나오겠습니다.》

정식이는 간호원누나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동무들과 함께 입원실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만이와 정민이가 큰소리로 말하면서 철수를 먼저 만나보겠다고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쉿! 병원에 와서는 조용해야 해. 그리고 뛰면 안돼.》

정식이는 영만이와 정민이를 멈춰세운 다음 그들에게 병원에 면회와서는 누구나 병원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한줄로 서서 복도의 층계를 올라 3층에 이르렀습니다.

정식이는 먼저 의사실을 찾았습니다.

의사선생님에게 소년단인사를 올리고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철수의 면회를 허락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이는 의사선생님에게 다시 인사를 하고 동무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철수동무의 호실에 들어가면 모두 떠들지 말고 조용히 만나야 해. 그리고 너무 오래 지체하면 환자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였어.》

동무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이어 호실을 찾아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선 정식이와 동무들은 부드럽게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철수동무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 아저씨들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 정말 미안합니다.》

아저씨들은 모두 일없다고 하면서 어서 철수를 만나보라고 이르는것이였습니다.

철수의 침대곁으로 다가간 그들은 철수의 손을 다정히 잡고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철수동무, 몸은 좀 어떻니?》

《철수동무, 몹시 보고싶었어. 어제 2반 동무들과 뽈을 차면서도 네가 있었으면 한꼴을 더 넣었을걸 하고 생각했어.》

《철수동무, 공부는 걱정말어. 이제 퇴원하면 우리가 적극 돕겠어.》

동무들의 친절한 목소리는 철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고마와. 동무들이 몹시 보고싶었어. 그래 선생님은 건강하시니? 수술받은 날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와 같이 내 침대곁에서 밤을 새웠어. 그런데 이젠 다 나았어. 의사선생님이 인차 퇴원할수 있다고 했어.》

동무들은 가지고온 사탕이랑 사과랑 사이다랑 꺼내놓았습니다.

정식이가 곁의 환자들에게도 가져다드리고나서 철수에게 어서 들라고 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철수의 손에 사과를 깎아 쥐여주며 그 동안 학급에서 있었던 재미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도 동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였습니다.

철수는 동무들과 오래 같이 있고싶었지만 공부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너희들도 공부랑 해야 할텐데. 여기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게 해서 미안해.》

정식이도 그냥 있고싶었지만 동무들을 일궈세우며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린 가보겠다. 치료를 잘 받아.》

동무들모두가 따뜻이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철수동무, 기다리겠어. 잘 치료받아.》

정식이와 동무들은 옆의 환자들에게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저씨들,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철수와 헤여져 입원실을 나선 정식이와 그의 동무들은 조용히 층계를 내려 병원을 나섰습니다.

제22과
전화례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전화는 서로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실이와 경희는 전화례절을 잘 지키는 례절바른 학생들이랍니다.

정실이가 전화를 걸고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창전소학교 학생 김정실입니다. 저는 경희의 동무입니다. 경희동무를 만나려고 합니다.》

잠시후 경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예. 리경희 전화받습니다. 난 누구라구, 정실동무로구나.》

계속하여 정실이와 경희가 전화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 정실이다. 그동안 잘 있었니?》

《응. 걱정해주어 고마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니?》

《아니, 일은 무슨 일이겠니. 래일 방학숙제장을 가지고 학교에 모이라는 련락이야. 9시까지 시간을 꼭 지켜야 해. 그럼 래일 만나자.》

《응. 알겠어. 그럼 안녕히!》

참으로 간단히 하면서도 서로 정을 두터이 나누는 전화례절입니다.

전화는 이렇게 거는 사람이 말을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며 전화를 받는 사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내용을 간단히 전하면서도 정확하게 의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웃사람들과 전화를 할 때 특히 례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웃어른들에게 례절바른 영철이가 전화를 걸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소학교 학생 리영철입니다. 구역책방입니까? 리정기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좀 찾아주실수 있습니까?》

이때 리정기선생님이 그곳에 없다고 하자 영철이는 《후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며 공손히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수화기를 놓을 때에는 반드시 웃사람이 먼저 놓은 다음에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끝내면서 웃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것은 례절에 어긋납니다.

전화를 끝낼 때에는 《안녕히 계십시오.》 또는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걸 때 찾는 사람이 없어 부탁할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미안하지만 꼭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단히 부탁할 말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전화가 잘못 걸려올 때도 있는데 이때에는 《잘못 걸렸습니다. 여기는 손님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잘못 걸려왔다고 하여 《아니요.》, 《아니라는데요.》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놓는것은 례절없는 행동입니다.

전화를 받다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것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면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곧 바꾸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계시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하십시오.》라고 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탁에 대하여 《몰라요.》, 《없어요.》라

고 하는것은 매우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전화례절을 바로 알고 그대로 전화를 하는 좋은 버릇을 붙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제23과
세상에는 《귀신》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 양덕군 대탕지 온천골에 얼마동안 계실 때의 일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을 모시고 마을어린이들은 산에 올라가 군사놀이를 하고 돌아오고있었습니다.

지름길을 따라 외진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집 한채가 나타났습니다.

앞장에 서시여 산길을 내리시던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무슨 집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이때 한 어린이가 저것은 《룡신당》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들어가 음식을 놓고 빌면 앓던 병도 없어지고 불행도 가셔진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부모들에게서 들은대로 이야기하는 그 어린이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한동안 소리

내여 웃으시더니 한번 《룡신당》에 들어가보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뜻밖의 말씀에 그 어린이는 저으기 놀라며 저안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귀신》이 잡아간다고 말씀드리는것이였습니다. 다른 어린이들도 정말 그렇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부모들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있는 어린이들을 둘러보며 밝게 웃으시더니 선뜻 《룡신당》의 널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는것이였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한동안 어리둥절해 서있던 마을어린이들은 이제 《룡신당》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질것만 같아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저마다 달려가 바위와 나무뒤에 몸을 숨기였습니다.

《룡신당》안을 돌아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널문을 열고 밝게 웃으시며 어린이들을 부르시는것이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잠시 주저주저하다가 위대한 대원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아무일도 없다고 하시면서 겁에 질린 그들을 데리고 《룡신당》안으로 다시 들어가시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룡신당》안의 맞은켠 벽에는 《신》

을 형상한 백발로인을 그린 한장의 그림이 있고 그앞에 《부처》가 놓여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다 들어오자 《룡신당》안을 빙 둘러보시며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이 어데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백발로인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이 《귀신》이라고 말씀올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건 그림이지 《귀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어린이가 《부처》를 가리키며 이것이 《귀신》인것 같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 《부처》 하나를 집어드시고 자세히 살펴보시다가 이건 나무로 깎아만든거야, 이것도 《귀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린이들에게 그 《부처》를 다 보도록 하시였습니다.

《부처》를 다 보고난 어린이들은 나무로 사람의 형태를 깎아 색칠한것임을 알고 더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은 이 《룡신당》에도, 그림에도, 《부처》에도 없다, 《귀신》이 있다는것은 다 거짓말

이다, 《귀신》이 있다는것은 옛날부터 나쁜 놈들이 꾸며낸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의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이어 그들을 데리고 산길을 내려오시였습니다. 옥류천가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가마처럼 생긴 자그마한 담소에 여러개의 동전이 있는것을 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동전이 있는 담소를 가리키시며 마을어린이들에게 저것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이때 한 어린이가 애기를 못낳는 엄마들이 저기에 와서 돈을 넣고 빌면 애기를 낳는다고 하여 《애기소》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그 어린이의 말을 들으시고 한동안 소리내여 웃으시더니 곁에 있는 한 어린이에게 저 돈을 건져오자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이는 저 돈에 손을 대면 조막손이 된다고 하면서 목을 움츠리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겁에 질려있는 그를 보고 그럼 내가 저 돈을 꺼내오겠다고 하시며《애기소》로 내려가시였습니다.

마을어린이들은 놀란 눈길로 위대한 대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기소》앞에 이르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팔소매를 걷어올리시고 그 동전을 꺼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동전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로 오시여 너희들이 《애기소》의 돈을 꺼내면 조막손이 된다고 했는데 어디 내 손이 조막손이 되였는가고 하시며 자신의 손을 펴보이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머리만 긁적거리고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는《귀신》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귀신》을 믿어서는 안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마을어린이들은 《룡신당》과 《애기소》에 귀신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습니다.

제24과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만났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례의도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만나면 례의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은 우리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놀수 있게 손에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갑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존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것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지켜야 할 례의도덕입니다.

인민군대대렬 또는 대렬차가 지나갈 때

인민군대대렬이 거리를 행진하여 지나가거나 인민군대대렬차가 지나갈 때에는 손을 흔들어 환영해야 합니다.

꽃다발이 있을 때에는 꽃다발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여야 합니다.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로에 뛰여드는것은 례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를 내여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이 학교를 찾았을 때

《우리 학교-우리 초소》관계를 맺고 자주 찾아오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존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저씨들, 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이 보고싶었습니다.》 등으로 인사를 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민군대아저씨들이 철봉을 비롯한 체육기재들을 손질해줄 때에는 《고맙습니다. 아저씨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아저씨들을 기다리겠습니다.》등으로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휴식하고있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만났을 때

학생소년들이 길을 가다가 훈련중에 잠시 휴식하고있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만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여야 합니다.

아저씨들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줄것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저씨,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인민군대아저씨의 이야기가 끝나면《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도 커서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민군대아저씨들이 제일 기뻐한답니다.

인민군대아저씨들과 헤여질 때에는 수첩을 꺼내여 이름을 적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이름부터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아저씨, 저의 이름은 김영철이예요. 여기 수첩에 아저씨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인민군대아저씨가 수첩에 이름을 적어주면 두손으로 받아쥐고 《고맙습니다. 아저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저씨,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하고 헤여지는것이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례절입니다.

그리고 여러 인민군대아저씨들을 대상할 때는 《인민군대아저씨들, 훈련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소년단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가운데서 소년단열성자 한명이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다같이 소년단경례를 하면 됩니다.

제25과
실수했을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사성이 없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철이는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이 있고 례절바르게 행동하고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호철이는 창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빨리 가서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호철이의 발걸음은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호철이는 창광원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자 반달음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빠트모퉁이에서 대학생누나와 부딪쳤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대학생누나는 이렇게 소리치며 들고가던 책가방을 땅바닥에 털썩 떨구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실수했다는 생각이 든 호철이의 얼

굴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잘 살피면서 걸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걸…)

호철이는 얼른 책가방을 집어들고 흙먼지를 턴 다음 대학생누나에게 두손으로 받쳐주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덤비다가 그만…》

《괜찮다, 어서 가거라.》

대학생누나는 인사성이 바른 호철이를 정답게 바라보며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얼마후 호철이가 창광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표를 떼가지고 옆으로 지나가는 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 경일이 같이 보였습니다.

《경일동무, 언제 왔니?》하고 호철이가 말하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철이가 다가서며 어깨를 툭 치자 그 아이는 놀란 눈길로 호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경일이가 아니였습니다.

신통히도 옆모습이 경일이와 비슷한 낯모를 학생이였습니다.

호철이는《미안해, 난 우리 학급 경일인줄 알고 그랬어.》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그럴수도 있지 뭐.》

그 아이는 싱긋 웃어보이고는 목욕실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날 호철이는 뜻밖에도 두번씩이나 실수를 했지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진정을 담아 사과하니 모두가 너그럽게 리해해주었습니다.

호철이는 창광원에서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철이는 아버지에게 창광원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호철이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호철아, 오늘 네가 정말 잘했다. 사람은 간혹 실수할수도 있단다. 그런때 진정을 담아 사과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그럽게 리해해줄수 있고 또 실수한 사람도 돋보이게 된단다. 남에게 실례되는 행동을 하고도 가만히 있거나 뻔뻔스럽게 행동하는것은 례의도덕을 지킬줄 모르거나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건방진 행동이다.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 진정을 담아 사과하는것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품성이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호철이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였습니다.

제26과
두발가진 승냥이 미국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한 승냥이들입니다.》

부산의 판자집마을에 10살밖에 안되는 창호가 앓고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책가방대신에 구두닦이통을 메고다니며 돈

을 벌어서 어머니의 병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무더운 어느날이였습니다.

창호는 외국말간판들이 어지럽게 나붙은 거리의 갈림길목에 앉아서 구두닦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가 땀을 흘리며 작은 손으로 구두를 닦고있을 때였습니다.

키꺽다리 양키 두놈이 나타나서 저마끔 어지러운 구두발을 창호의 코앞에 쑥 내밀면서 빨리 닦으라고 호통쳤습니다.

창호는 껌을 씹으며 눈알을 부라리는 놈들을 아니꼽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구두약칠을 해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놈들은 약칠값도 내지 않고 꽁무니를 빼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창호는 더는 참을수 없었습니다.

(나쁜 놈들, 저놈들한테서 어떻게 하나 돈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창호는 달려가서 미국놈들의 앞을 막아서며 약칠값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양키놈들은 오히려 미친 승냥이처럼 으르렁대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창호를 사정없이 구두발로 차고 때리였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창호는 양키놈들의 낯짝

에 구두약통을 던졌습니다.

새까만 구두약이 놈들의 온몸에 들씌워졌습니다. 성이 독같이 난 양키놈들은 창호를 타고앉아 그의 머리칼을 사정없이 잡아뽑고 뻰찌로 손톱과 발톱까지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창호의 머리와 온몸에 콜타르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성차지 않아 놈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창호를 나무상자안에 넣었습니다.

이때 거리로 오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승냥이 양키놈들의 치떨리는 만행을 보고 참을수 없어 맞서 나섰습니다.



《이 승냥이같은 놈들아, 죄없는 어린애를 내놓으라!…》

그러자 바빠맞은 놈들은 창호가 들어있는 상자를 차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너울을 쓰고 어린애를 저렇게 죽일수 있담… 조선사람을 마구 죽이는 저놈들을 모조리 때려잡아야 해!…》

격분한 사람들은 미제승냥이놈들을 쏘아보며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이날 양키놈들은 창호를 상자속에 넣은채로 직승기에 실어서 바다에 내다던졌습니다.

앓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해보려고 애쓰던 나어린 창호는 이렇게 승냥이 미국놈들에 의해 무참히 죽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창호만이 당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한창 피여야 할 꽃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대낮에 승냥이 미제놈들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고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제놈들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정말 미제놈들은 남조선어린이들과 인민들을 못살게 굴며 닥치는대로 죽이는 우리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이놈들은 량심이란 털끝만치도 없는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쓴 두발가진 승냥이무리들입니다.

우리는 남녘땅에 둥지를 틀고앉아 온갖 못된짓을 다하고있는 승냥이 미제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놈들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27과
기차를 타고갈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도를 사랑하며 려행을 할 때에는 제정된 철도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철이네 분단동무들은 기차를 타고갈 때의 질서와 례절을 잘 지키고있습니다.

맑게 개인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으로 정철이네 분단동무들은 항구문화도시 원산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야영을 가게 되였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하얀 등산모를 쓰고 배낭을 가뜬히 멘 분단동무들은 기쁜 마음으로 역표찍는 곳앞에 질서있게 섰습니다.

마이크를 든 안내원누나가 선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려행하시는 손님여러분, 모두가 려행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킵시다.

많은 사람들이 려객렬차를 리용하는 조건에서 려행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고 즐겁게 려행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 렬차가 제시간에 달릴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여러 건설장들에 더 많은 짐을 나를수 없고 사람들의 려행에도 방해를 주게 됩니다.

손님들은 표찍는 곳에서 차표를 안내원에게 보이고 홈에 나가서는 정해진 자리에 질서있게 서있어야 합니다. 차가 들어오면 내릴 사람들이 다 내린 다음에 차례로 올라야 합니다.…》

안내원의 이야기를 들은 분단동무들은 한줄로 질서있게 표찍는 곳을 나와 역홈의 정해진 자리에 나란히 서서 렬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렬차가 역에 들어섰습니다.

정철이네 분단동무들은 차가 완전히 멎고 손님들이 다 내린 다음에 차례로 승강대에 올랐습니다.

차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배낭을 벗어 렬차선반우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배낭끈이 보기싫게 늘어지지 않도록 정돈하였습니다.

짐들이 다 정돈되자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후 렬차는 《붕-》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차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포구로 드나드는 고기배들도 한눈에 바라보였습니다.

렬차가 어느 역에 멎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한분이 할머니와 같이 손자를 앞세우고 차안으로 들어서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으십시오.》

정철이와 영수가 먼저 알아보고 자리를 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들어온 손자아이는 봉남이가 자기 옆에 앉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기특하다고 칭찬하시며 정철이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였습니다.

《야, 아버지가 탄 고기배가 들어온다.》

손자아이는 고기잡이나간 아버지가 보이는것처럼 창밖으로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원 녀석두…》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하시는 말이였습니다.

봉남이도 따라웃고나서 손자아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아당기며 타일렀습니다.

《기차가 달릴 때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안돼.》

아이는 알았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이때 렬차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여러분, 지금부터 렬차안에서 지켜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렬차안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렬차안에서 큰소리로 떠들면 즐거운 려행을 하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렬차가 달릴 때 승강대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승강대에 나가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합니다.

차안에 있는 비품들을 아끼고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의자에 자그마한 흠집도 내지 말며 바닥에 휴지나 음식찌끼들을 널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정철이네 분단동무들은 렬차안에서의 질서를 잘 지킬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들은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즐겁게 노래부르며 동해연선을 달렸습니다.

렬차는 어느덧 원산역구내에 들어서고있었습니다.

분단동무들은 내릴 준비를 하고있다가 렬차가 완전히 멎은 다음 차례로 내렸습니다.

정철이와 영수는 할아버지의 짐을 들고 봉남이는 손자아이의 손목을 잡고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정철이와 영수, 봉남이는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례절바른 학생들을 봤나! 고맙네, 고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학생들을 몇번이나 돌아보면서 칭찬하시는것이였습니다.

기적소리가 길게 울리더니 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철이네 분단동무들은 나란히 줄을 지어 역을 나섰습니다.



려행할 때 지켜야 할 철도규정과 려객렬차리용질서를 위반하면 법에 의하여 엄중히 단속되고 벌금을 내거나 그보다 더 강한 법적처벌을 받는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28과
철길과 그 주변에서의 행동질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은 교통질서를 지키는데서도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

사람의 피줄처럼 온 나라로 뻗어나간 철길로는 렬차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오가면서 수많은 손님들과 짐들을 나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철길과 그 주변에서의 행동질서를 잘 지켜야 렬차들이 마음놓고 오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길과 그 주변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가요?

철길 건너다니는 질서

철길은 반드시 철길건늠길이 있는 곳으로만 건너다녀야 합니다.

철길건늠길에는 감시초소와 철길건늠길표식 그리고 차단봉이 있습니다.

철길건늠길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는 먼저 렬차

가 오지 않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차단봉이 내리워졌을 때에는 기다리다가 그것이 올라간 다음 건너야 합니다.

차단봉이 내리워지는 순간에 건늠길안에 들어섰을 때에는 빨리 밖으로 나와 기다려야 합니다.

철길건늠길을 건너갈 때 그 구간에서 장난하거나 남보다 먼저 가겠다고 덤비지 말아야 합니다.

동생을 데리고 철길건늠길을 건너갈 때에는 손목을 꼭 잡고 건너가야 합니다.

철길구름다리 리용질서

철길구름다리가 있을 때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철길구름다리로만 건너가야 합니다.

이때 구름다리의 란간이나 계단에서 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주변에서의 행동질서

철길주변에 있는 개울이나 강가에서 목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철길주변의 공원이나 풀밭에서 낮잠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렬차에 돌을 던지는것과 같은 법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주변에서 장난을 하며 놀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보호

철길주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자갈 한알도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철길주변의 나무를 뜨거나 꽃을 꺾는 현상, 잔디를 떠가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철길주변의 흙을 파거나 자갈을 날라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철길주변에 집짐승을 매놓거나 끌고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주변의 꽃밭을 환하게 꾸려야 합니다.



○ 학생들은 철길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철길이 곧은길이라고 하여 학교에 오갈 때 철길로 다니는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더구나 레루나 침목우에 올라서서 장난을 하는것은 사고를 낼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철길과 그 주변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위반하였을 때에는 엄중한 정도에 따라 벌금을 받거나 그보다 더 큰 벌을 적용합니다.

제29과
친형님의 마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졸업학년 학생들은 아래학년 학생들을 깔보고 우쭐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아래학년 학생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봉길이네 집 뜰안의 배나무들에는 노랗게 익은

배알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습니다.

어느날 길가던 몇명의 1학년 애들과 마을의 유치원꼬마들이 참새잡이를 한다면서 돌팔매질을 하고있었습니다. 배알이 떨어지고 나무가지가 부러지는데도 경쟁이라도 하듯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마침 봉길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가, 혼내줄가?… 아니야, 차근차근 타일러주어야지.)

《애들아, 여기서 뭘하니?》

돌팔매질에만 정신을 팔던 애들은 봉길이의 물음에 와뜰 놀래여 주춤거렸습니다.

봉길이는 큰소리가 나가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자기 주위로 그들모두를 불러세웠습니다.

《애들아. 배나무에 돌팔매질은 왜 하느냐?》

봉길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주눅이 들었던 애들이 한발자국씩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참새잡이하댔는데…》

《선생님이 참새는 나쁜 새라고 했어요.》

봉길이는 하나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애들을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좀 생각해봐. 참새를 맞히겠다고 돌멩이를 던지면 배알이 떨어지고 배나무도 못쓰게 되지 않니.

그리고 집유리창도 깰수 있어. 더구나 돌을 잘못 던져 길가던 사람들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니?》

봉길이가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자 머리를 수그리고있던 한 애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자 다른 애들과 유치원꼬마들도 머리를 끄덕여보였습니다.

《자,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런 장난을 하지 말아.》

봉길이는 애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었습니다.

애들은 떨어진 배알을 주으며 부러진 가지를 손질하는 봉길이를 보며 소곤소곤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난 봉길형님이 좋아!》

《그건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두 다른 형님들처럼 주먹도 흔들지 않고 욕질도 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뿐인줄 아니? 봉길형님은 비오는 날에 옷을 적시면서 나한테는 자기 우산을 씌워주었어!》

이번엔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던 코날이 오뚝한 유치원꼬마가 말했습니다.

《난 저 형님이 업어까지 주었다!》

《그래, 언제 업어주던?》

《전번에 비오는 날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저 형님이 날 업고 집까지 데려다주었는데… 난 저

형님이 좋아!》

저마끔 한마디씩 소곤거리던 애들은 봉길이를 《친형님》이라 부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윽고 배나무밑을 다 거두고 나온 봉길이는 애들에게 잘 익은 배를 골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봉길이는 1학년생들과 유치원꼬마들의 형님이 되였고 또 그들은 봉길이의 동생들로 되였습니다.

이렇게 봉길이는 아래학년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을 친동생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모두 봉길이와 같이 친형님의 마음으로 아래학년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제30과
부모의 생일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입니다.》

옥이는 어제 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일을 맞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가 하고말입니다.

옥이는 여느날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내려간 옥이는 어머니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어머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맙다! 우리 옥이가 이젠 어머니의 생일날도 다 알고…》

어머니는 옥이가 대견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옥이는 어머니를 도와 방안을 깨끗이 거두었습니다.

이어 아침밥상이 올랐습니다.

유치원동생이 먼저 밥상에 마주 앉으려고 하자 옥이는 동생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명남아, 오늘은 어머니의 생일날이란다. 그러니 어머니를 제일 가운데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앉아야 해. 그렇지요, 아버지.》

아버지는 옥이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옥이가 이젠 어른이 되였는걸!》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옥이는 밥상에서 닭알이랑 맛있는 반찬들을 어머니앞으로 밀어놓으며 《어머니, 많이 잡수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학교에 갈 때였습니다.

옥이는 동생에게 《명남아,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붉은 별을 받아야 해. 그래야 어머니가 기뻐하신다. 알겠니?》라고 말하고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학교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였습니다.

하루공부가 끝났습니다.

옥이는 학습반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꽃매대에 들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 한송이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이는 방안을 말끔히 거두고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시였습니다.

옥이는 얼른 일어나 어머니에게 꽃송이를 드리며 인사하였습니다.

《생일날 직장일을 많이 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를 축하해요.》

옥이의 얼굴에도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였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시였습니다.

옥이는《아버지 오셨어요?》라고 인사말을 하며 가방을 받아쥐였습니다.

아버지는 옥이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옥이야, 가방을 열어보렴.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과를 가져왔다.》

사과라는 말을 들은 동생이 옆방에서 나오며《누나, 나 사과…》 하고 말하였습니다.

《명남아, 어머니의 생일날이라고 아버지가 가져오신건데 어머니부터 드리고 우리 다같이 먹자.》

옥이는 명남이를 타이르고나서 사과를 깨끗이 씻어 큰 접시에 담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일 크고 먹음직한 사과를 골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먼저 드린 다음 동생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옥이와 명남이는 부모님들앞에서 5점 맞은 자랑, 붉은 별을 받은 자랑도 펼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참말 옥이네 집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들도 옥이처럼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의 생일날을 잊지 않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자기를 낳아 키워주는 부모님들에 대한 자식의 도리이며 가정에서 지켜야 할 례의도덕입니다.

제31과
철길우에 휘날리는 붉은넥타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철도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여름방학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수와 인섭이가 토끼풀을 뜯으러 산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면서 소낙비가 쏟아져내렸습니다.

경수와 인섭이는 바위밑에 들어가 비가 멎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수가 근심어린 눈길로 칼바위쪽을 바라보며 《철길에 사태가 나지 않을가?》하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래, 칼바위구배길에 돌사태가 날수 있어.》

인섭이도 한마디 하였습니다.

인섭이가 일어서며 《경수동무, 빨리 가보자.》하고는 앞서 산을 내렸습니다.

앞서 달려가던 인섭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철길에 돌사태가?…》

돌사태에 묻힌 철길을 바라보는 두 소년의 마음은 안타까왔습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강성국가건설장으로 달리는 기차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의 귀중한 두줄기의 철길을 빨리 원상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건설장과 공장, 농장별마다에서 더 많은 자재와 기계, 비료들을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경수와 인섭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두 주먹을 부르쥐였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기차가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는것을 알고있는 그들의 귀가에는 금시 기적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가?)

일은 매우 급하게 되였습니다.

경수는 인섭이에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여기서 돌을 치우며 기차를 지켜. 내가 선로반아저씨들한테 갔다오겠어.》

경수는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인섭이는 부지런히 레루를 덮은 돌과 흙을 쳐내고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고 손끝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이때 북쪽 산모퉁이에서 《붕-》 하고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섭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산굽이로 기차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순간 인섭이는 생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해빛같은 사랑을 담아싣고 고향마을을 날마다 지나가는 기차,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인 기차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해야 한다.)

인섭이는 입술을 옥물고 붉은넥타이를 풀어쥐고 기차를 마주 향해 달려갔습니다.

《기차를 세우세요. 철길에 돌사태가 났어요.》



인섭이는 온몸의 힘을 모아 이렇게 웨치며 달렸으나 기차는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인섭이와 기차와의 사이는 5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리며 붉은넥타이를 더욱 힘있게 흔들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돌사태가 난 칼바위에 못미처 멈춰섰습니다.

불과 몇m앞에 인섭이가 쓰러져있었습니다.

운전칸에서 내린 기관사아저씨는 인섭이를 안아일으켰습니다.

《얘야, 정신을 차려라!》

《아저씨, 철길우에 돌사태가…》

가까스로 눈을 뜬 인섭이의 손에는 방금 흔들던 붉은넥타이가 꼭 쥐여져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맑은 눈가에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와 인민의 행복을 실은 기차를 구해냈다는 기쁨이 어려있었습니다.

《정말 장하다! 이 철길의 주인은 너로구나!》

기관사아저씨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경수가 선로반아저씨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모든것을 알게 된 아저씨들은 경수와 인섭이를 사랑스럽고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차를 목숨바쳐 구원하려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참 용쿠나!…》

아저씨들은 이렇게 말하며 두 소년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습니다.

이읏고 돌과 흙을 말끔히 쳐낸 철길우로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붕-》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기차는 떠났습니다.

기관사아저씨를 손저어 바래워주는 인섭이와 경수의 가슴우에는 붉은넥타이가 자랑스럽게 휘날리고있었습니다.

오늘도 인섭이와 그의 동무들은 철길을 아끼고 사랑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철길주변에 꽃도 심고 자갈도 곱게 펴놓으면서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습니다.

제32과
눈길, 손짓, 몸가짐을 바로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람의 됨됨은 얼굴이나 외모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눈길과 손짓, 몸가짐을 바로해야 합니다. 그것은 눈길과 손짓, 몸가짐을 보고서도 그 학생이 례절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평가할수 있기때문입니다.

특히 웃사람들앞에서 눈길과 손짓, 몸가짐을 잘하지 못하면 도덕이 없는 학생이라고 비난받게 됩니다.

눈길을 어떻게 해야 할가요?

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눌 때 눈길을 바로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눈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기분상태나 마음을 알아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눈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곧추 보면서도 눈길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올리보거나 내리깔고보는 눈길은 남을 깔보거나 멀리하는 거만한 태도입니다.

좌우로 흘겨보는 눈길은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싫증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딴데를 보거나 멍하니 쳐다보는 눈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달가와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학생들은 부모들과 웃사람들앞에서 눈을 가로보거나 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들이나 웃사람들의 추궁을 들을 때 눈길을 잘 가져야 례절바른 학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손짓을 어떻게 해야 할가요?

학생들은 이야기를 할 때 망탕 손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짓은 이야기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만 하여야 하며 점잖고 정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반드시 손을 펴서 정중

히 가리켜야 합니다.

웃사람에게 길이나 건물을 알려줄 때에는 손전체를 펴고 손가락을 곱게 모아 바로 가리켜야 합니다.

웃사람을 부를 때에는 손짓을 하면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웃사람은 될수록 가까이 다가가서 불러야지 멀리서 손목을 까딱까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망탕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가락질은 어디에서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손가락질을 받으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웃어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얼굴에 손가락을 올리하는 것은 매우 도덕이 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음식상을 마주하였을 때에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어보라고 하면 오히려 마주 앉은 사람들의 기분을 흐리게 하고 음식맛을 떨구게 합니다.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가요?

몸가짐은 의젓하고 점잖게 하여야 합니다.

웃사람이 말할 때나 충고할 때 몸을 꼬거나 모로 서고 비스듬히 기대서는것은 못마땅해하는 태도입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손시늉을 하거나 발장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몸을 좌우로 흔드는 버릇이 있는

데 이런 몸가짐은 단정치 못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눈길과 손짓, 몸가짐은 서로 조화롭고 알맞게 하여야 합니다.

눈길이 부드럽다고 하여도 몸가짐이 점잖지 못하거나 몸가짐을 잘 가졌다고 하여도 눈길이나 손짓을 바로하지 못하면 도덕이 없는 행동으로 됩니다.

때문에 때와 장소에 맞게 눈길과 손짓, 몸가짐을 바로 하여야 례절밝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로 될수 있습니다.

제33과
간절한 소원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되자면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선군령도의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의 일입니다.

우리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눈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였습니다.

아침부터 펑펑 쏟아붓던 함박눈이 뜸해지고 한낮부터는 눈보라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에 《휙》 하고 눈뭉치들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명호의 생각은 깊어만 졌습니다.

(이 추운 날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어디에 가계실가? 최전연초소에 가계실가 아니면 멀리 북쪽의 어느 령길을 넘고계실가?… 솜옷은 입고 떠나셨는지. 이 추운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쩌나.)

집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줄곧 아버지대원수님생각으로 온밤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지. 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들의 행복도 미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아버지장군님께 두툼한 새털솜옷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가!…)

새털솜옷에 생각이 미친 명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잠시후 불을 켜보니 벽시계는 3시를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지금도 눈보라치는 소리가 이따금씩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성에가 하얗게 낀 창문가에 다가선 명호는 이윽토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잦을줄 몰랐습니다.

이해 겨울추위는 시작부터 무슨 일을 낼것 같이 사나왔습니다.

명호는 아무래도 마음속생각을 어머니에게 비쳐보이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명호는 어머니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명호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훌륭한 생각을 하였다고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며 새털솜옷을 만들자면 새털 1㎏은 있어야 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새털 1㎏, 꼭 해낼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명호는 새털은 자기가 동무들과 같이 마련할테니 솜옷을 짓는 일만은 어머니가 맡아해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날이 훤히 밝기 시작하였습니다.

명호는 그날부터 동무들과 함께 새털모으는 일을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개, 두개 고르고 또 골라 모아들인 새털은 어느덧 1㎏이 되였습니다.

언제나 조급한 성미인 성철이가 명호에게 재촉하였습니다.

《이젠 빨리 어머니에게 솜옷을 만들게 하자꾸나.》

하지만 명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철동무, 아버지장군님께 드릴 솜옷인데 두툼해야 돼. 생각 좀 해보렴. 올해 추위는 여느때없이 세차지 않니? 그러니 조국의 북쪽 한끝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께 사나운 추위를 막아드리자면 1㎏도 많지 않은거야. 그리고 난 버선도 해드리고싶구나. 동무도 알겠지. 아버지장군님께서 그 추운 날씨에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고계시니?!…》

명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습니다.

명호를 바라보던 성철이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명호동무, 내 생각이 짧았어. 아버지장군님을 위한 마음에는 자그마한 티가 있어도 안된다는것을 잊을번 했어. 날 용서해!》

명호와 성철이를 비롯한 그의 동무들은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안고 더 많은 새털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은 새털가운데서도 더 보르르한것들만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옷을 잘 지어 공장에서 이름이 난 명호어머니가 며칠동안 정성을 다하여 두툼하고 폭신폭신한 새털솜옷과 버선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2월 16일 민족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새털솜옷과 버선을 편지와 함께 올렸습니다.

그들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모두 돌보시며 추운 겨울날도 늘 밖에서 지내시는 아버지대원수님.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하여 저희들은 새털솜옷과 버선을 마련하여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명호와 그의 동무들이 올린 편지와 새털솜옷, 버선을 받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였습니다.

오늘도 명호와 그의 동무들은 아버지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있습니다.

제34과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을 잊지 말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모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학교와 자기를 배워주고 이끌어준 선생님을 잊지 않는것은 우리 학생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례의도덕입니다.

영수는 어제밤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과 헤여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입학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정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그런데 벌써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되다니!)

돌이켜보면 4년동안 재미나게 공부하고 재미나게 뛰놀며 키도 크고 마음도 자랐습니다.

영수는 아침 일찌기 학교로 나갔습니다.

학교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앞에 새겨져있는 2중영예의 붉은기학교라고 쓴 글발이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볼수록 정다운 학교였습니다.

영수는 영영 떠나고싶지 않은 마음을 안고 학교둘레를 돌며 감나무동산과 교재원의 푸른 잣나무며 애기꽃나무들을 돌아보고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이젠 퍼그나 자랐구나! 나도 이젠 중학생이 되구.》

혼자소리로 애기꽃나무들과 말을 나누는 영수의 눈앞에는 선생님과 함께 감나무동산을 꾸리던 일, 멀리 뒤산에 올라 잣나무와 애기꽃나무들을 떠다 심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습니다.

새로 꾸려놓은 염소우리를 돌아볼 때였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염소젖을 먹이자고 200리나 넘는 다른 도에까지 가서 밤을 꼬박 새우며 그날 밤중으로 종자염소를 구해오신 우리 선생님의 모습이 안겨왔기때문입니다.

그날 선생님의 옷자락은 땀에 푹 젖어있었습니다.

염소우리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염소들을 새 우리에 이사시킨 날이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제는 학생들에게 염소젖을 먹일수 있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우리 선생님이시였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기뻐하시던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도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모습들이였습니다.

영수는 이어 정다운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칠판을 보는 순간이였습니다.

(저 칠판과 함께 선생님은 속도 많이 태우셨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영수의 눈앞에는 공부를 잘해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될수 있다고 일깨워주며 공부를 잘하도록 이끌어 주신 선생님의 모습이 생생히 안겨왔습니다.

글씨를 곱게 쓰라고 저 칠판에 또박또박 글자를 새겨가며 글씨련습을 지도해주시던 우리 선생님, 수학문제풀이방법을 익혀주려고 응용문제 하나를 열번이나 다시 칠판에 되풀이하며 설명해주시던 우리 선생님이시였습니다.

언젠가는 영수가 까치둥지를 털려고 키높은 나무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학습반지도를 나오시던 선생님이 언제 보셨는지 숨차게 달려오시였습니다.

선생님은 욕하실 대신 까치는 좋은 새라고 일깨워주시며 나무에서 떨어질가봐 다 내려올 때까지 지켜서계셨습니다. 그날의 일은 정말 잊을수 없습니다.

돌이켜볼수록 우리 선생님의 모습은 더욱 또렷이 안겨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 우리 학교를 잊지 말아야겠구나!)

영수의 가슴속에는 모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굳게 자리잡았습니다.

이윽고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노력으로 학급동무들모두가 우등,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였습니다.

정든 소학교를 떠나며 영수와 그의 동무들은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하였습니다.

《선생님, 중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꼭 최우등생이 되여 선생님을 찾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앓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들은 다른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학교정문을 나선 영수와 그의 동무들은 정든 소학교와 우리 선생님을 잊지 말고 편지도 자주 하고 학교에 자주 찾아와 기쁜 소식도 전하자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약속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약속을 꼭 지키는 품성을 키워야 합니다.

소학교때 선생님이나 동무들과 한 약속, 소년단조직과 한 약속에는 이담에 커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귀중한것들이 많습니다.

그가운데는 영수와 그의 동무들처럼 모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자는 약속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킬줄 모르는 사람은 례의도덕이 없는 사람이며 동무도 모르고 조직과 집단도 몰라보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킬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조국도 배반할수 있습니다. 조국을 배반하면 혁명의 원쑤가 됩니다.

사회주의도덕(소학교 제4학년용)

3판

집 필 부교수 김룡택
심 사 심의위원회
장 정 김순영
편 집 김학연
콤퓨터편성 김학연
그 림 리창엽
교 정 한순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9(2010)년 9월 20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21일

교-12-보-594 값 5원